제 호

명 예 도 민 증 서

직 위 : 재일거류민단 야마나시현 본부 부단장

성 명 : 이 영 구 (李 榮 求)

생년월일 : 1928년 2월 16일

귀하께서 충청북도 발전에 남기신 업적을 깊이 새기고 이 고장을 잊지 않으시도록 15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충청북도 도민증서를 드립니다.

1993년 월 일

충청북도지사 김 덕 영

공 로 조 서

국 적	대 한 민 국		
주소 또는 소속	日本國 山梨縣 甲府市 丸の内 3丁目 24-3		
직 업 및 직 위	재일 거류민단 야마나시현본부 부단장		
성 명	李 榮 求	생년월일	1925. 2. 16

공로사항

" 별 지 참 조 "

중 요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1948.6	서울 국학대학 문과 졸	1967.9 ~ 현재	거류민단 야마나시현본부 부단장 및 국제부장
1953.2 ~ 1966.5	주일 대한민국 대표부 근무	1977.10 ~ 현재	야마나시현 일.한 친선협회 이사 및 사무국 차장
1966.6 ~ 1967.8	주일 대한민국 나고야영사관 근무	1992.10 ~ 현재	야마나시현 국제교류협회 이사

위 와 같 이 상 위 없 음 을 확 인 함.

1993 년 // 월 일

추 천 자 직 위 : 총 무 과 장 성 명 박 남 규 (인)

공 로 사 항
○ 추천인 이 영 구 (李 榮 求) 씨는 1925년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436 번지에서 농부의 아들로 출생하여 경기도 광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소재 한영중학교를 다니던중 일본군에 징집되었으며 해방후 서울국학대학 문과를 졸업(1948) 하였습니다. ○ 그후 주일본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14년간 ('53~'66), 나고야(名古屋) 영사관에 1년간 근무하면서 일본과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현재는 재일거류민단 야마나시현본부 부단장과 야마나시현 국제교류협회 이사직을 맡고있는 재일한국인입니다. ○ 젊은 나이에 홀연 단신 일본으로 건너가 지금은 칠순을 바라보는 노령의 나이가 되도록 40 여년 간을 만리타향 일본에서 꿋꿋하고 자랑스러운 재일한국인으로 긍지를 잃지 않고 재일동포들의 위상정립과 자긍심 고취등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 특히, 충청북도와 야마나시현간의 교류와 우호 증진에 산파역을 다함으로써 양 도현 관계는 물론, 국가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분으로서, 다음과 같은 공로로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제 2조에 의하여 충청북도 명예도민으로 추천합니다.

공 로 사 항

1. 양 도.현 사회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에 가교역할 수행

- 충청북도와 일본야마나시현간의 교류가 시작된것은 지금부터 약 20년전인 1973년 5월 4일, 청주시청주라이온스클럽과 야마나시현 고후시서라이온스클럽간의 자매결연으로 당시 추천인은 양 단체가 결연을 추진하는데 있어 통역은 물론, 상호 방문단의 안내 및 체류편의등 궂은일을 마다않고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양단체의 원만한 결연체결에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도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 그 이후에도 청주중앙라이온스와 야마나시현 고후시 남라이온스클럽('75. 6.5), 한일친선충북협회와 야마나시현 일한친선협회('86.3.27), 청주시 북청주로타리클럽과 야마나시현 고후시 서로타리클럽('89.3.16), 그리고 청주상공회의소와 야마나시현 고후시상공회의소('91.6.6)간의 자매결연에 이르기까지 양지역 사회단체간의 자매결연 때마다 매년 2~3 회씩 수시 왕래하면서 지원을 하였으며

- 그밖에 야마나시현 고교축구단의 본도 고등학교와 친선경기, 충북은행과 고후시 중앙은행과의 교류, 야마나시현 Y.B.S (언론사)와 충청일보사와 교류와 금융, 언론계 뿐만아니라 일반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우리 도와 조국을 위한 일에는 공사 가리지 않고 열심히 협조해준 민간외교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 로 사 항

2. 양 도.현 공식 자매결연 체결에 공헌

- 이와같은 양 도.현 사회단체의 교류성숙에 따라 '89. 4. 4 일 야마나시현 고후시 상의회장 일행 래도시 자매결연을 제의한 이후 '92년 3월27일 양 도·현이 상호 경제, 문화, 체육, 행정 등 각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과 우호증진을 다할 것을 서명하기까지 3년여의 기간동안 상기 추천인은 자신의 일처럼 있는 정열을 모두 쏟아 놓았습니다.

- 추천인은 충북도 및 야마나시현을 오가며 양도현 실무관계자와 수차 협의 하였으며 양 도·현 지사및 한일 친선협회장과도 긴밀한 접촉 등 원활한 교류 여건성숙을 위하여 뛰어다녔습니다.

- 이러한 노력으로 '89. 11. 27 야마나시현 국제과장의 본도 방문을 시작으로 '91. 5. 17 야마나시현 일일신문사 우미노편집국장 본도 예방시 야마나시현지사의 결연 희망의사 전달이 있었으며

- 이후 양 도.현 자매결연 추진 분위기는 급속도로 진전되어 양 도.현 자매결연 실무단 및 양 도·현 지사의 교환 방문에 이은, '92. 3월 공식적인 자매결연을 체결 하기까지 수차에 걸친 상호 방문시에는 야마나시현 측의 통역을 담당하는등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공 로 사 항

3. 본도 연수단 야마나시현 방문 편의제공

· 상기 추천인이 충청북도에 쏟은 애정은 자매결연체결에 그치지 않고 지난 해 우호 교류사업으로 추진한 본도 공무원 및 민간단체 교류 연수단의 야마나시현 방문시에도 바쁜 일정에 시간을 내어 방문단의 체류에 불편이 없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 그후 양 도.현의 교류는 양적으로 크게 확대 되었는데 우리도 공무원 2명의 야마나시현 장기파견시 수시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일본생활의 고충을 상담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일상 생활에서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 또한 우리도의 자치행정연수반, 농촌지도공무원연수, 농어민후계자 연수, 고교야구 친선경기, 예술단 공연 등 수차에 걸친 교류사업단 방문시마다 따뜻이 맞이 해주었을뿐만 아니라 현지안내 및 통역은 물론 일본에 대한 식견을 넓힐수 있는 조언으로 연수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 앞으로도 양 도현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세계속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긴밀한 유대와 교류를 통한 상호 보완적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믿음직한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 로 사 항
○ 무보수직인 재일 거류민단 야마나시현본부 부단장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고, 틈틈히 교포 2세들에게 국어와 고국에 대한 강의도 하면서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소명의식 아래 맡은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조국애를 불태우고 있으며, 최근에는 야마나시현 국제교류협회 이사직을 맡아 그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고 있는 자랑스런 우리의 재일 교포 입니다. ○ 그간에 추천인이 보여준 우리 도와, 나아가 국가에 대한 애정에 고마움을 기리기 위해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로서 영원히 우리의 기억속에 되새기고자 합니다.